산단 가동률 줄고 자영업자 경영 악화…산업 활력 '뚝'

국감으로 본 광주·전남 산업 생태계

대불산단 가동률 2년새 27.3% 하락 전국 최저…전체 7.5%↓
숙박·음식 등 폐업률 가장 높아…中企 육성 정책 참여 저조

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광주·전남지역의 열악한 산업 생태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경제 지표와 정부기관의 허술한 정책 집행 능력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적지 않다.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지역 경제계 현황을 살펴본다.

◇침체된 지역 산업단지=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놓은 '국가산단 가동률' 자료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지역 산업단지의 현황을 엿볼 수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할하는 광주 첨단과학국가산단 내 50인 미만 입주기업들의 가동률은 지난 6월 기준으로 2년 전보다 24.5%나 급락했다. 산단 전체 입주기업들의 가동률도 2년 전에 견줘 7.5%나 떨어졌다.

대불외국인산단 내 전체 입주기업 가동률은 2년 전보다 무려 27.3%나 급락, 서울산단을 제외하면 가동률 하락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고 광양산단(-11.7%), 대불산단(-6.3%), 여수산단(-1.7%) 등도 2년 전보다 가동률이 떨어졌다.

대기업에 비해 소규모 영세업체에게 미치는 경기침체의 여파가 더 컸다. 광양산단 내 50인 미만 입주기업들의 가동률은 2년 전인 2016년에 비해 38.4% 떨어진 반면, 300인 이상 기업들의 가동률은 같은 기간 11.4% 하락했다. 여수산단 내 50인 미만 기업들의 가동률은 2년 전보다 14.3% 떨어졌지만 300인 이상 기업들의 가동률은 오히려 3.4% 늘었다.

활기를 띠지 못하는 산단을 떠나는 기업들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광주첨단과학산단에 입주했다가 계약을 해지한 기업은 85개, 올해는 10월 현재 입주 계약을 해지한 기업이 120개에 달했다.

김규환 의원은 이와관련, "입주 업체가 사업을 지속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갈수록 악화되는 소상공인 경영 여건=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상가업소 폐업률은 지난해 상반기 0.7%에서 하반기 1.7%로 1.0%포인트 높아졌다.

전남도 같은 기간 폐업률이 0.5%에서 0.9%로 상승했다. 그만큼 경영 여건이 악화됐다는 의미로 해석될만하다.

특히 광주지역의 경우 8개 업종(부동산·생활서비스·소매·음식·관광여가오락·스포츠·숙박·학문교육) 중 숙박과 음식업종 폐업률이 높았다.

숙박업소는 2017년 상반기 1.0% 수준이던 폐업률이 하반기에는 2.3%로 급등했고 음식업종 폐업률도 지난해 상반기 1.1%에서 하반기에는 2.2%로 뛰었다. 지난해 하반기 전체 폐업률(1.7%)을 웃도는 수치로 심각한 경영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게 윤 의원 분석이다.

전남도 지난해 하반기 음식업종 폐업률이 1.2%로 8개 업종 중 가장 높았다.

◇뽑아만놓고 지원은 대충?=중소기업진흥공단의 소극적인 중소기업 육성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김규환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2018년 수출성공패키지사업 지역스타기업 지원 현황' 자료를 인용, 광주지역에서는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꼬집었다.

수출성공패키지사업은 전국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200개 지역기업을 선발,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책이다. 광주에서는 15개 스타기업이 대상이지만 고작 한 곳만 신청했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전남도 15개 기업 중 1곳만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에서는 7건, 강원·전북 각각 5건, 울산·부산 각 4건 등이 신청한 것과 비교해도 지역 기업들의 참여도가 낮다. 관련 사업을 진행중인 광주테크노파크측은 다른 지역과 달리 스타기업을 선정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기업들의 신청 준비기간이 짧았고 수출용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많지 않은 점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김규환 의원은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업성과가 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지역 중소기업들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 사내 식당에서 임직원들이 테이크아웃 음식이 담긴 재생종이 봉투를 들고 있다.

삼성 플라스틱 감축 운동

삼성 계열사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플라스틱·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에 나섰다.

우선, 삼성전자·삼성SDS·삼성전기 등 일부 계열사들이 테이크아웃 메뉴를 제공하는 사내식당에서 벌이고 있는 플라스틱 감축 활동을 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삼성물산·신라호텔 등 모든 계열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내 식당에서는 플라스틱과 비닐 재질을 재생 종이 재질로 변경하고 일회용 숟가락과 포크의 비닐 포장을 제거할 예정이다.

또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 음료를 줄이고 에코백 사용도 독려한다.

삼성은 이런 활동으로 사내식당에서 플라스틱과 비닐 사용량을 월 36t, 연간 432t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전남 5개 市 광·제조업 취업자 1만1000명 감소

전년 상반기보다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는 증가

일자리를 찾아 빠져나가는 젊은층이 잇따르고 조선업 등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전남지역 주요 도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23일 공개한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등 전남 5개 지역 광·제조업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의 경우 1만9000명이던 광·제조업 취업자가 올 상반기에는 1만5000명으로 줄었고 여수는 2만1000명에서 1만9000명으로, 순천은 1만6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6600명이던 나주지역 광·제조업 취업자도 올 상반기에는 6000명으로 줄었다.

목포·여수·순천의 경우 건설업 취업자도 같은 기간 일제히 감소한 반면, 나주·광양은 다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들은 늘어났다. 목포는 지난해 상반기 2만5000명에서 올 상반기 2만7000명으로 증가했고 순천도 2만4000명이던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가 올 상반기에는 2만9000명으로 뛰었다.

제조업 경기가 안 좋을 때 나와서 창업을 하거나 자영업으로 방향을 돌리던 구직자들이 많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통계청의 올해 상반기(4월 기준) 전국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2004만3000명의 월 임금 수준은 100만원 미만 9.8%, 100만~200만원 28.5%, 200만~300만원 29.1%, 300만~400만원 15.8%, 400만원 이상 16.8%의 분포를 보였다. 금근로자 가운데 38.3%인 767만6000명은 월급이 200만원에 못 미쳤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월급 200만원 미만 근로자 비중은 4.7%포인트 낮아졌고, 200만원 이상 근로자 비중은 4.7%포인트 높아졌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농림어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높았다.

농림어업 분야 근로자는 74.8%가, 숙박 및 음식점업 근로자는 71.0%가 월급이 200만원 미만이었다.

고임금 근로자 비중은 산업별로 보면 금융 및 보험업에서, 직업별로는 관리자 직군에서 높았다.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월급이 400만원 이상인 근로자 비중이 각각 37.8%, 37.0%였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우리 농산물로 건강 음식 만들어요"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23일 농협 도농협동연수원(원장 권갑하)과 영암 신유토마을에서 '전남 로컬푸드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요리대회는 도시여성소비자가 로컬푸드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우리농산물 식재료를 통한 국민건강과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광주·전남 4400가구 집들이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광주·전남에서 4400여 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부터 향후 3개월간 광주·전남에서 4423가구가 입주자를 맞을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지역의 경우 3개월 간 2466가구가 집들이를 하고 전남에서는 1957가구가 새 아파트로 입주할 예정이다.

11월에는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첨단대라수 300가구, 전남의 경우 광양시 광양에르가 5년 공공임대 420가구, 목포시 석현동 에드가안채 114가구, 함평군 대동면 함평향교 임대주택 150가구, 장성군 공공실버 150가구가 입주한다.

12월에는 광주시 남구 진월 행복주택 460가구, 장흥군 코아루 해피트리 374가구도 입주할 예정이다.

내년 1월에는 광주시 남구 임암동 효천1블록 중흥S클래스 1527가구가 입주자를 맞고 순천에서는 용당동 덕진 순천의 봄 아파트가 749가구의 입주를 진행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코스피, 해외 악재에 연중 최저점

55.61P 내린 2106.10…장중 한때 2100선 붕괴

코스피가 23일 무역전쟁 등 대내외 여러 악재가 분출하면서 힘없이 2110선을 내줬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5.61포인트(2.57%) 내린 2106.10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3월 10일(2097.35) 이후 1년 7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14.41포인트(0.67%) 내린 2147.30으로 출발해 낙폭을 키우다가 장중 한때는 2094.69까지 밀려났다.

지난 11일 '검은 목요일' 이후 심리적 지지선 역할을 해온 2100선이 일시적이나마 무너진 것이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25.15포인트(-3.38%) 떨어진 719.00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날보다 3.80포인트(0.51%) 내린 740.35로 출발한 뒤 약세 흐름을 이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151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1018억원, 기관은 113억원어치를 각각 순매수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9.2원 오른 1137.6원으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06.10 (-55.61)	↓ 금리 (국고채 3년) 1.99 (-0.02)
↓ 코스닥 719.00 (-25.15)	↑ 환율 (USD) 1137.60 (+9.20)